

2016 서울연극제 젊은 연출가전 '미래야숫아라' 심사평

제37회 서울연극제 젊은 연출가전 '미래야 숫아라'는 창작집단 소구의 <갈매기B>, 프로젝트 다락방의 <다락방>, 극단 예모리의 <개미집>, 크리에이티브 팀 지오의 <정의>, 극단 창파의 <메리크리스마스>, 극단 시지프의 <울 아비 정초부>, 즉각반응의 <무라>, 극단 하땅세의 <외투>, 극단의 극단의 <오래된 미래> 등 총 9개 작품이 '예술공간 오르다' 극장과 '예술공간 서울'에서 공연 되었습니다. 창작극, 그리고 번안 및 해외 작품 등 젊음의 기운을 가득 담은 무대가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은 9작품을 모두 관극한 후 수상작 선정에 위한 회의를 5월 1일과 4일 두 차례 가졌습니다. 각각의 개성과 장점을 가진 9작품 중 작품상을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다락방의 <다락방>, 극단 예모리의 <개미집>, 그리고 극단 창파의 <메리크리스마스>가 긍정적으로 논의되었지만, 초연과의 차별성, 저작권 문제, 완성도의 아쉬움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올해 '미래야숫아라'의 작품상은 아쉽지만 해당 작품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연출상은 작품의 환경과 인물의 특성을 연기의 양식적 표현과 음악과 음향의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무대의 신선함을 채워준 작품에 심사위원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연기상은 무대에서 보여준 연기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참작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상은 젊은 연극인들의 힘과 땀을 보여주며 미래의 발전을 기대하게 한 작품과 단체

가 수혜 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제37회 서울연극제 '미래야숫아라'에 작품을 올린 모든 단체와 젊은 연극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항상 지금과 같은 열정과 신선함을 잃지 않는 연극인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일동 고동엽, 최재오, 백순원